

기획&제작 : Mud(뮤직드라마)

이장현 극본



웹 드라마
사랑에도 공식이 있나요?



썸만 터려주는 이 남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제3공식 29쪽

로그라인

"잘 들어. 사랑도 이분법이야."
★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세상은 흑과 백, 음과 양이야. 사랑도 똑같아. 결국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지."
안연대 수학과 1학년 정다빈은 동갑내기 친구들 사이에서 시원하게 고민을 해결해 주는 자칭
고민 해결사이다. 학창 시절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로
구분을 지을 만큼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다빈은 도저히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수상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며칠 뒤 친구들과 집에서 수다를 떨다가 새로 이사 온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참지 못한 다빈은 옆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뭐야?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당신이야?!"

시놉시스

이 남자... 대체 정체가 뭐야?

야심한 밤. 서울의 한 주택.

맥주를 마시며 드라마를 보고 있는 다빈과 은서 그리고 수연. 이 셋은 중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다. 올해 스무살이 된 세 사람은 서울에서 같이 자취를 시작했다. 드라마 내용으로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 세 사람.

“야 저건 남자가 쓰레기네!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아니지!”

은서의 말이 끝나자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수연.

“근데 이해는 간다. 여자가 먼저 바람피웠었잖아? 저 여자도 문제야.”

수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다빈.

“현 상황에서 보면 여자가 먼저 바람을 피웠다는 건 시청자만 아는 내용이고 극 중 저 남자는 모르잖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남자 잘못 백 프로야. 재수 없는 거지.”

먹던 맥주를 내려놓는 친구들. 그리고는 다빈에게 시선이 쏠린다.

“넌 드라마를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

이때, 은서에게 도착하는 문자 한 통. 씬남에게 온 문자다.

다들 긴장한 상태로 문자를 확인한다. 밀당 중인 남자.

“야. 잘 들어. 사랑도 똑같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애매하게 구는 애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저 드라마처럼. 알겠냐?”

다음 날 아침.

학교를 가고 있는 다빈은 코너 길가에서 한 남자와 부딪혀 넘어진다.

“저기요. 부딪히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다빈의 말을 들은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가 부딪힌 거예요? 그쪽이 부딪힌 거예요? 한눈 판 건 그쪽 아닌가요?”

어이없어하는 다빈을 뒤로하고 바닥에 흘린 종이들을 줍는 남자. 그리고는 다빈에게 다가간다.

“아 뭐... 그래도 주워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제 건데요? 그쪽 거는 아직 바닥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화가 난 다빈은 잔뜩 성이 난 채로 구시렁거리며 바닥에 흘린 서류들을 줍기 시작한다.

이때 다시 다가오는 남자.

“8시 48분. 여기서 언덕으로 올라가자마자 왼쪽 모퉁이로 돌아가면 오래된 철문 하나 있어요.

거기로 가면 안 연 대학교 본관까지 5분이면 가요. 그럼 안 늦겠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다빈은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학교로 향한다.

그날 밤, 새로 이사 온 옆집의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던 다빈은 참다못해 옆집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된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당신이야?!”

캐릭터 소개



*가상 캐스팅입니다.

**"수학공식처럼
모든 일은 정답이 있어."**

정다빈 / 20살 / 수학과 학생

세상은 이분법.

완벽주의자이자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답이 없는 문제도 답을 찾으려 매진한다.

모든 일에 득과 실을 따지고 늘 이성적인 판단으로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정다빈

완벽주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인 지수와 단짝으로 지냈다.

어느 날, 지수가 기타 연주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올릴 것을 권유한 다빈. 허나, SNS에는 보기 힘든 악플 테러가 쏟아졌고, 그 과정에서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의 불을 지폈다. 온 힘을 다해 막아서는 다빈에게 일진 무리 중 한명인 서아는 괴롭히는 이유에 대해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진다.

"그냥."

시간이 흐르며 더욱 심해지는 괴롭힘에 지수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다빈은 스스로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생각하여 지수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확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현재의 다빈의 모습이 생겨났다.

현재, 안연대학교 수학과에 재학중인 다빈. 동네 친구들과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수학 과외를 시작한다. 다빈의 성격처럼 철저한 시간 관리와 완벽함 때문에 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한 달도 버티기 힘들어 한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좋고 나쁨에 대하여 이성적인 판단만 하고 감정은 철저히 배제한다.

그 때문에 이유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나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한다. 지수의 기억으로 음악을 듣는 걸 힘들어하고 답을 내리기 힘든 분야인 예술을 싫어한다. 스스로가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스무살 나이에 맞게 허점도 많다.

캐릭터 소개



*가상 캐스팅입니다.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차은서 / 20살 / 카페 알바생

카페 아르바이트생.

손님으로 온 남자와 오랜 기간 썸을 타다가

사귄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커플.

밝고 명랑하다.

변해가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차은서

통통 튀는 성격. 발랄하고 명랑하다.

늘 드라마같은 사랑을 꿈 꾸면서 지내오다 알바하고 있는 카페에 단골로 찾아오던 동갑내기 동우의 적극적인 대시로 사귀게 되어 100일을 앞두고 있는 새내기 커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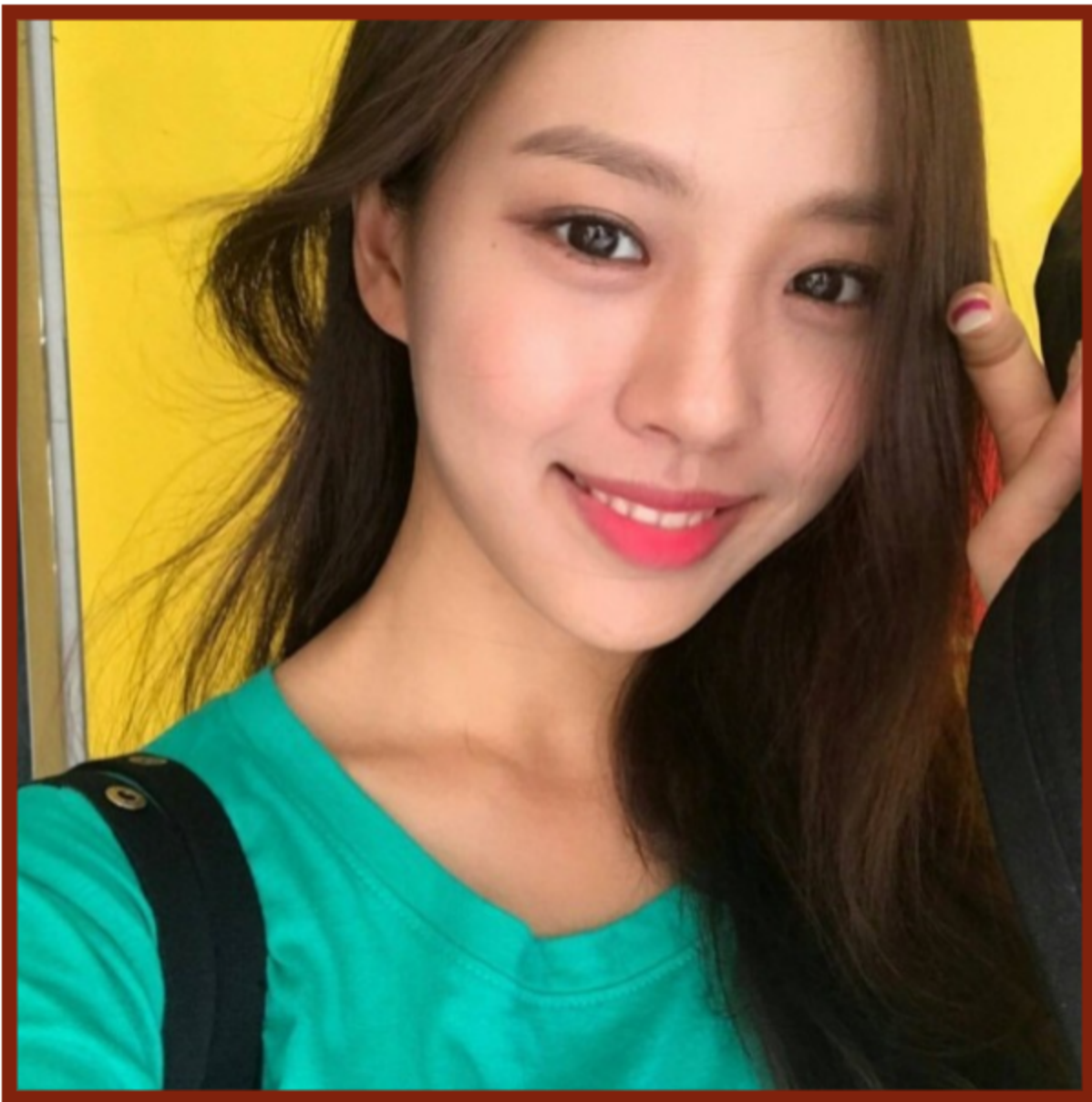
귀가 얇아 주변 사람들의 연애조언에 쉽게 휘둘러 매번 데이트 할 때마다 다른 스타일로 동우를 놀라게 할 때가 있다. 할말은 죽어도 다 하는 성격.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다. 하지만 하루 일과에 동우가 빠지면 알바 말고는 할 게 없을 정도로 동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술을 좋아하여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자주 만들고 특유의 리더십으로 친구들 사이 행동대장. 원하는 대학에 붙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재수를 하게 됐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20살이 되던 해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적극적인 연애관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줄 것 같은 타입이다.

스스로 꾸미고 관리하는 걸 좋아한다. 작고 귀여운 악세사리를 좋아해 자주 착용하고 다니고 동물을 좋아하여 수의사가 되는 걸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여 하루에 한번 SNS에 사진을 업로드를 꼭 하는 편이고 조금이라도 틈이 날 때마다 셀카를 찍는 버릇이 있다. 웃도 잘 입어서 친구들 사이 패셔니스타로 유명하다.

캐릭터 소개



*가상 캐스팅입니다.

**"오래 사귀다보니까
내가 질리나봐."**

윤수연 / 20살 / 경영학과

친구들 앞에선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는 남자친구 앞에선 한없이 작아진다.
늘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오래 만났다는 이유로
점점 소홀해지는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애써 쿨하게 넘기려 한다.

윤수연

시원하고 털털한 성격. 친구들사이 대인배로 불리운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엄마"라고 가끔 부를만큼 대인배 기질이 있으며 나서서 해결해주는 걸 좋아하는 타입. 연인인 성진과는 중학교 3학년 때 부터 20살까지 친구들 사이 단연 장수커플로 유명하다. 무뚝뚝한 성진의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지고 또 작아진다. 친구들과 웃으며 장난치다가도 성진의 말 한마디에 주눅들기 일쑤다. 자존감이 낮아 알게 모르게 남에게 의지를 하고 갈등의 기로에 섰을 때 무언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 심지어 메뉴조차 잘 고르지 못하는 성격에서 오는 선택장애가 있다. 능동적인 척 하는 수동적인 타입으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 애를 쓰는 편이다.

착하고 순종적인 수연이지만 성진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질 정도로 현재 성진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별 다른 목적과 꿈을 갖고 살지 않고 수연의 머릿속은 온통 성진으로 가득 차 있다. 대학 진학 또한 성진을 따라 안연대 경영학과로 진학을 하였다. 공부에 재능이 뛰어나서 피나는 노력 없이 대학에 붙어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주변 친구들은 성진의 달라진 모습에 수연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만 수연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성진을 늘 감싸고 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해가는 성진의 무관심에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점점 소극적이고 자신감도 잃어간다.

캐릭터 소개



*가상 캐스팅입니다.

**"답이 없는건
제가 아니라 그쪽인데."**

유진영 / 20살 / 보컬 지망생

보컬 지망생.

친아버지가 유명한 보컬리스트였다. 하지만 장르에 대한
갈등때문에 이른 나이에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다.

늘 무표정한 얼굴로 다니며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다.

하지만 노래를 부를때는 정반대의 모습이 보인다.

유진영

무뚝뚝함의 끝판 왕.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다.
표정 또한 무표정 하나로 모든 감정을 표현 할 정도이다.
실력파 기타리스트였던 모친의 영향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됐고
초등학생 때 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기타를 놓친 적이 없다.
부친과는 적대적인 사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잦은 싸움
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 진영이가
18세 되던 해 모친이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그 후로 부친과
더 자주 싸우게 되고, 20살이 되어 자취를 시작하게 된다.
어릴때부터 봐온 부친의 바람기가 모친의 별세 이후 더 심해
지자 배신감을 느끼게 된 진영. 가고 싶어 하던 대학도 포기하고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과외를 시작하게 된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진영은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사람과의 관계를
차갑게 끊어내는 편이다. 그런 진영도 유일하게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 기타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는
뛰어난 집중력과 감성으로 몰입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은 극히 적을 정도로 별다른 공연이나 연주회
를 하지 않고 집에서 음악공부와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수와 고등학생때 같이 음악 공부를 한 사이이다.
연애 경험은 없고 친한 친구로는 성진이 유일하다.
부친의 술주정을 보고 자라온 진영은 술을 기피한다.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해 자신의 음악에 가미하여 남의
감정을 훤히 내는 편. 큰 키와 잘생긴 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만 부담스러워 해 사람 많은 곳을 피해 다닌다.

캐릭터 소개



*가상 캐스팅입니다.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알아?"

강동우 / 20살 / 재수생

재수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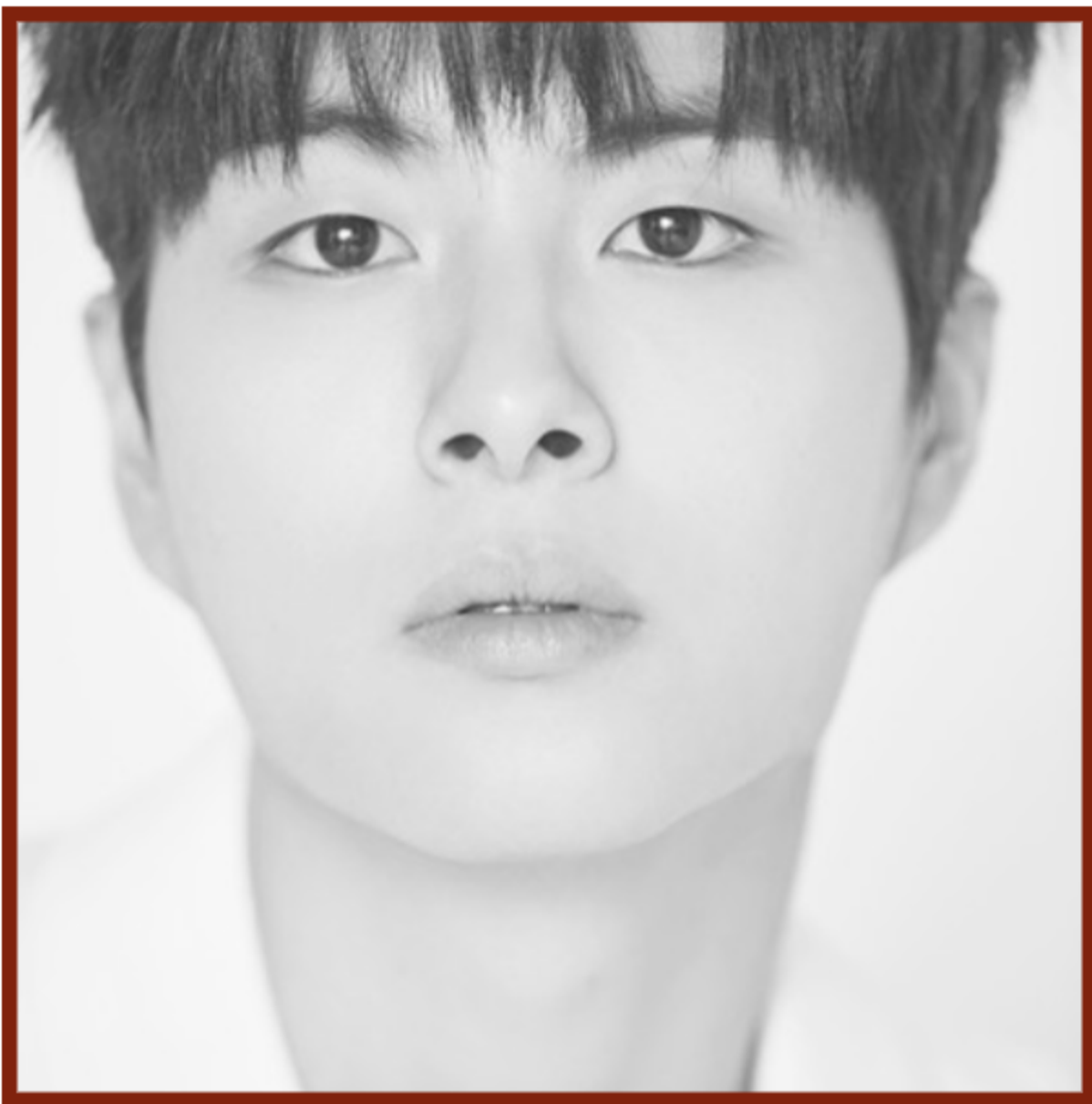
가난한 집안 때문에 대학 진학을 미루고 알바를 시작했다.
자주 가던 카페에 알바로 일하는 은서를 보고 첫 눈에 반해
사귀게 되었지만, 점점 조여오는 현실적인 문제로 점점
은서를 멀리하기 시작한다.

강동우

타칭 소년가장.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어린 두 동생을 둔 장남이다.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압박감과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그로 인해 가계부를 쓸 정도로 경제관념이 철저하다. 자신보다 어린 두 동생들을 더 꼼꼼히 생각해 하루에도 알바를 두 세개나 뉘 정도로 애착이 강하다. 영화감독이 꿈인 동우는 틈나는 시간을 활용해 카페에 들러 영화 대본을 쓰곤 한다. 그러다 알바생인 은서에게 첫 눈에 반하게 된다. 애써 자신의 상황을 알고 마음을 접으려 하지만 그럴수록 커지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대시하여 사귀게 된다. 그 후로 카페에 자주 오는 은서의 친구들과도 가깝게 지낸다.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재밌고 유쾌한 면을 갖고 있다.

여자친구인 은서도 동우의 어두운 면을 모를 정도로 포커페이스가 뛰어나고 어릴 적 자신을 동정하던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듣게 된 동우는 더욱 더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숨기는 것에 익숙해져있다. 고등학교 선배인 수정과 유일하게 터 놓고 지내는 사이. 수정은 동우의 상황을 잘 알기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 중 필요한 알바자리를 자주 구해준다. 동생들과는 따로 살고 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씩은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 은서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어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고 있다.

캐릭터 소개



*가상 캐스팅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돼?"**

김성진 / 20살 / 경영학과

안연대 경영학과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간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와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냉철하고 차가워 좀처럼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아영에게 점점 소홀해지지만 별로 개의치 않아한다.

김성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고있다. 노력해서 안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 편. 여자친구인 수연에게도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대시를 통해 사귀게 된다. 허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홀히 대하기 시작하게 된다.

대학 진학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원하는 걸 얻기까지 많은 걸 포기해야 했던 성진이지만 성진의 눈에는 수연의 모든 것들이 큰 노력없이 쉽게 얻어지는 걸 보고 허탈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들은 점점 질투가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많은 것들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타입.

현재는 안연대학교 경영학과 과대를 하고 있고, 선배들과 교수님들에게 인정 받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학교 생활에 충실한 편. 그로 인하여 수연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한다.

캐릭터 소개



*가상 캐스팅입니다.

**"쌤, 열심히 공부 할테니까
비밀 지켜주세요야해요."**

도민호 / 18살 / 안연고 학생

안연고 2학년 도민호.

세상 무서울 게 하나 없는 꿈 많은 철부지.

유일하게 두려워 하는 존재가 있다면 다빈이다.

활발하고 외향적이며 새로운 시도를 좋아한다.

도민호

철부지 고딩.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티가 난다.

활동적이고 많은 분야에 흥미를 쉽게 느끼지만 쉽게 질린다.

이런 민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바로 공부.

민호의 성적표가 나올 때면 화목한 집안은 지옥으로 변한다.

어머니의 압박으로 과외를 시작하게 되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생겼다. 바로 다빈. 특유의 끼와 능글스러운

성격으로 잘 넘어가보려 하지만 칼 같은 다빈의 성격에

하루하루 눈치를 보며 과외를 한다. 그러다 음악에 관심이

생겨 음악인을 꿈꾸게 되는 민호. 부모님 몰래 꿈을 키워

나가기 시작한다.

호감가는 외모에 외향적인 성격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꾸미는 걸 좋아하며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빠져 나오는 걸 참지 못할 만큼 헤어스타일에 예민하다.